

산 자 부 , 지 역 신 성 장 동 력 기 술 개 발 에 282억 지 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법)는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282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은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선 올해 8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지원된 결과, 지역은 기술수준 및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지역산업진흥사업 기술개발 이외에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신규지원되는 이번 기술개발은 지역기업 기술력 제고에 큰 도움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기술개발을 비롯해 장비·센터 등 인프라, 인력양성,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년 지역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를 통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과제는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공통기술 분야에 36억원 ▲전략 산업 구조조도와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복합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중점기술 분야에 48억원 등이다. 경북(신소재부품, 한방생물), 울산(조선해양), 제주(생물), 충북(생물), 충남(자동차부품), 대구(소프트웨어), 경남(생물)이 올해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

정 통 부 , 제 2 기 IT 839 프 로젝 트 추 진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최근 'IT839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과 시스템 구축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1기 IT839 추진단계 때의 기술개발, 시범사업, 제도기반 구축, 국내외 마케팅 등 정책적 노력이 축적·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100만원대 국민로봇·모바일 전자태그(RFID) 사업 등 대규모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 IT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휴대인터넷·지상파DMB 등 신규 서비스의 내수 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비 간 호환, 애플리케이션 부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기지국 설비 공동활용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한다는 복안이다. 또 IT839 품목들의 본격적인 상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IT839 품목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 마련은 오는 2006년 휴대인터넷, WCDMA(HSPDA), 홈 네트워크, RFID 상용서비스 등 IT839의 신규 핵심 8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제는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성장 동력을 촉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산 단 공 , 평 양 에서 남 북 경 제 협 력 위 한 대 규 모 투 자 설 명 회 개 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은 지난 10월 1일 민간 최초로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남한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김칠두 이사장과 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 국가산업단지 경영인협의회 회장단 등 기업인 28명을 비롯해 섬유산업연합회 회원 31명, 유통업계 10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했다. 북한 측에서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관계자와 새별, 삼천리, 광명성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투자설명회는 '남북한경제협력 활성화 방향과 과제'와 '북한의 투자환경'에 대하여 남북한이 각각 주

제발표를 한 뒤, 남한의 기업체 대표와 북한의 산업계 관계자가 투자상담회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9월 30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산업시찰단 일행은 평양방직합영회사(안동대마방직 대표 김정태)의 개업식에 참석해 이 기업의 평양 진출을 축하했다. 또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방문, 민간 차원의 남북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평양 인근에 소재한 평양방직, 평양편직물직장, 평양대마방직 등 주요 산업시설을 둘러보았다. 산업공 측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가 개성공단과 더불어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특허정보원, 신춘밸리와 지식재산권 정보 조사·분석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은 9월 29일 신춘지역 3개 대학(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된 '신춘밸리'와 지식재산권 조사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국특허정보원은 신춘밸리와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분석업무 및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특허출원 지원 및 특허정보 제공과 관련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3개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대학-기업의 산학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신춘밸리는 이들의 기술이전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의 신기술 동향 및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연구 ▲특허정보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특허정보, 연구개발 등에 대한 상호 세미나 및 교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의 우수한 기술이전을 도모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산학협력체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기 원장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학의 우수한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산업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산원, 국제 DMP 표준화 회의 개최

한국전산원(원장 김장곤)은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제8차 DMP(Digital Media Project)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DMP표준 초안 작성을 위한 Ad-hoc 그룹 회의, DRM 플랫폼 상호운용성 연구 주제 발표, 안건 승인 및 임원 발표, 향후 계획을 세우는 3일간의 DMP 총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유통 표준화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향후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도 가능해졌다.

한국전산원 이규정 e비즈니스 팀장은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DMP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보호 및 관리 분야와 식별 분야를 접목시키기 위한 표준 제정과 2006년도 Work Plan 승인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DMP는 브리티시텔레콤, 파나소닉, JVC 등 국내외 25개 회원사가 참여해 디지털 미디어의 표준화 과정을 조율하고 검토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가장 큰 문제인 비개방적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 콘텐츠의 이용을 둘러싼 불평등한 상황 해결 등을 기치로 내걸고 국제 표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KOVWA 이랜서 양성사업 기업회원 가입 안내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 문제 해결과 기존 여성전문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KOVWA이랜서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 1단계 : 기업회원 가입

- KOVWA이랜서 양성사업 웹사이트 방문(www.elancer.or.kr) 후 기업회원 가입

● 2단계 : 기업서비스 이용 안내

- 프로젝트 등록 · 관리
- 프로젝트에 지원한 이랜서 확인
- 이랜서 이력서 열람 확인 및 스크랩 가능
- 스크랩된 이랜서 정보 확인

● 3단계 : 프로젝트 등록 안내

- 프로젝트 등록건수 무제한
- 한 번 등록된 프로젝트는 마감일 변경만 가능
- 상세히 등록된 프로젝트는 이랜서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며, 지원율과 성사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

● 4단계 : 기업회원 특전

- 프로젝트 등록 시 KOVWA이랜서 기업담당자가 해당 분야를 희망하는 이랜서에게 TM 및 메일로 프로젝트 정보 안내
- 프로젝트 등록 이후 계약까지 KOVWA이랜서 기업담당자가 중개 관리

●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오상민 주임(02-6009-8504)

여성기업성공사례 발표회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기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역경을 딛고 기업가로서 안정된 자리에 오른 여성벤처인들의 실제적인 체험을 생생하게 들려줌으로써 초기 여성기업인들에게 용기와 경영방침을 제시해 주고자 여성기업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행사 개요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관하는 '2005년 산업기술주간'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동 행사기간(10월 20일(목)~26일(수)) 중에 개최함

- 주최 : 중소기업청
- 주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 후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일시 : 2005년 10월 21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 332호

행사 내용

송혜자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의 인사말, 격려사, 미립기술 주혜순 대표 외 4명의 성공사례 발표, 질의응답

참가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www.kowwa.or.kr), 팩스 02-6009-8502, 이메일 kowwa@kowwa.or.kr
- 신청마감 : 2005년 10월 18일(화)
-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이은영 대리 (02-6009-8501)

대 덕 특 구 , 33 대 1 경 쟁 를 뚫 은 인 재 19 명 가 세 박인철 이사장, 송낙경 사업단장 등에 이어 대덕R&D(연구개발)특구를 이끌어갈 일꾼 19명이 추가로 가세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9월 29일 면접시험을 거쳐 경력직 지원자 660명 중 19명의 최종합격자를 30일 발표했다. 이들 합격자들은 임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를 거친 후 임용될 예정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9명(47%), 대전·충남 4명(21%), 강원 2명(10%), 기타지역에서 4명이 선발됐다. 19명의 임용후보자 중 남자는 16명, 여자는 3명이다.

한편, 특구지원본부는 이번 인력 채용에 이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총 30명의 인재를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대전시, 온라인 채용시스템 구축

대전시와 대덕밸리벤처연합회는 대덕R&D특구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온라인 채용시스템(www.ddjob.or.kr)은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로 대전지방노동청과 대전소재 각 대학 취업지원센터의 협조로 제조, 연구개발, 행정, 사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들의 인력 채용을 도울 예정이다. 맞춤형 채용정보 관리를 통해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사전인력 검증으로 기업이 원하는 업종 및 직종, 학력, 경력 등의 인력을 확보하고, 면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의 각종 채용정보와 발전가능성을 홍보해 대덕의 벤처기업과 구직자 간의 높이를 맞춰줌으로써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기관인 대덕밸리벤처연합회는 현재의 화상면접시스템을 뛰어넘어 앞으로 첨단벤처집적지인 대덕의 위상에 걸맞은 화상 메일링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상에서 채용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대덕밸리 선포 5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온라인 채용시스템의 오픈을 알리기 위한 '시스템 설명회 및 화상면접 시연회'를 9월 26일 오후 2시 대덕밸리테크노마트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와 대전지역 대학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시스템의 특징과 이용방법 소개가 진행됐으며 인바이오넷, 위월드, 매니아뱅크 등 3개 기업이 화상면접을 통해 10여 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VD Scrap



▶ 2005년 10월 5일 부산일보 23면
협회 조현정 회장이 릴레이과학강연 특강에서 '세계 도약을 이끄는 벤처 백만대군 양성'을 강조했음을 보도한 기사.

◀ 2005년 10월 6일 전자신문 15면

분당 벤처밸리가 국내 유명 벤처기업과 세계적인 첨단 IT기업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 벤처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음을 보도한 특집 기사.

